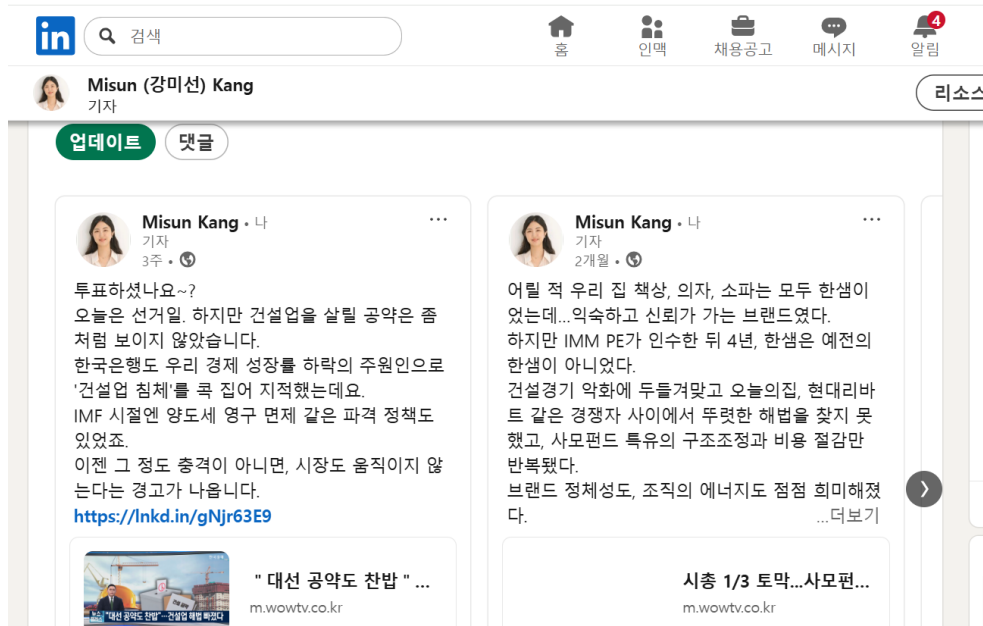


청첩장을 쫓고, 두릅을 캔다



한국경제TV

강미선 기자



필자의 링크드인 페이지. 링크드인은 페이스북보다 좀 더 비즈니스 업무에 가까운 소셜미디어 SNS다. 관련 분야 취재원을 찾기도 하고 기사를 홍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한다.

그날 저녁 식사는 단순한 인사였다. 며칠 전, 링크드인에서 5년도 넘게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기 언니가 친구 추가를 걸어왔다. 친구 추천 알고리즘이었는지, 내가 매일 사람을 추가하고 검색한 결과였는지는 모르겠다. 산업부에 오고 난 뒤, 나는 링크드인 제한이 걸릴 만큼 사람들을 찾아 헤맸다. 절박했다. 경제부 시절처럼 또박또박 보도자료를 해설하고 사례자를 찾아 넣는 모범생 루틴은 여기선 통하지 않았다. 익숙한 프레임이 깨졌다. 그것도 익히는 데 1년 이상이 걸렸는데, 첫 인사발령지는 그보다 더 험난했다. 문턱은 예상보다 높았고, 하루하루가 막막했다.

알고보니 내가 하도 많은 사람들을 추

가하다 보니, 그 언니에게 내가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된 것이었다. 나는 뭐라도 들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사실 링크드인 친구 추가를 하고 나서 말을 걸어도 씹히고 서로 인삿말조차 오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에도 난 먼저 메시지를 보냈고, “언제 한 번 보자”는 말이 오가기 무섭게, “이번 주 저녁 시간 어때? 내가 언니 근처로 갈게”라고 곧장 덧붙였다.

우린 여의도 이자카야에서 마주 앉아 하이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근황을 주고받았다. 코흘리개 같던 우리가 어느덧 직장인이 되었고, 그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이직에도 성공해 새로운 직장

에 들어가기 전 잠시 숨 고르는 중이었다. 언니의 해사한 미소는 여전했다. 일은 일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똑소리 나게 해내는 언니가 부럽기도 했다.

그렇게 대화는 흘렀고, 나는 던지듯 물었다. “요즘 ○○ 지역 사업 어떻게 돼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던데.”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톡 던졌는데 또 톡 나왔다. 감이 왔다. 그녀는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아, 그거? 내가 실무 담당했잖아.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설마? 이게 이렇게 쉽게 연결된다고?’ 거의 한 달을 그 내용을 캐고 있었는데, 눈앞에서 육하원칙이 또렷하게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은 단편 정보 수준이었고, 배경은 흐릿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건, 문장의 끝마다 느낌표가 붙는 확신 있는 사실들이었다. 기자로서 실감했다. 제대로 된 귀인 취재원 한 명은 열 명을 능가한다는 걸.

그녀는 내가 딱 취재하려던 분야의 핵심 실무관계자였고, 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누가, 왜, 무슨 배경으로 ... 내가 몇 주를 붙잡고도 풀지 못한 질문들이 그날 밤 다 풀렸다. 식사 중간중간 나는 유도하듯 물었다. 억지스럽지 않게,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진탕 마신 술자리도 아니었기에 사진 찍듯이 머

릿속에 내용을 외우고 또 외웠다. 취재하고 있던 회사의 사업을 대강이라도 알고 있었기에 다행이었다. 모르고 갔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 흘려보냈을지도 모를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취재는 집요하게, 말투는 부드럽게’라는 내 모토대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보고 후 바로 단독 기사를 냈다. 첫 성공 경험은 컸다.

산업부에 온 뒤, 막막했던 취재 방식 속에서 이 성공은 내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경쟁매체가 내 기사를 따라 쓴 걸 봤을 때, 그 순간이 정말 생생하고 아직도 신선하다.

경제부에선 정책이 뜨면 방송기사를 알기 쉽게 풀어야 했기 때문에 공장 관련 사례자를 찾고, 목소리를 확보해야 했다. ‘얼마나 스케줄에 맞춰 빨리’ 섭외하느냐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달랐다. 기업의 이야기들은 더 은밀했고, 내 부적이고 보수적이었다. 보도자료보다 앞서야 했고, 발표되지 않은 기류를 먼저 감지해야 했다. 누가 누구와 협약을 맺는지, 공장은 어디에 들어서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한 육하원칙이 발표되기 전에 감각적으로 ‘냄새’를 맡아야 했다. 사람을 뒤졌고, 관계를 추적했다. 그렇게 얻은 연결 하나가, 운 좋게 특종이 됐다.

다행히 취재원 보호는 잘 지켜졌고,



수확한 두릅을 포장하기 위해 다듬는 작업을 하는 필자. 초벌 취재를 하고 버릴 것과 살릴 것들 것을 정리하는 과정과도 비슷하다.

기사화에 대한 갈등도 없었다. 그 사건 이후에도 그녀와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고, 1년쯤 지나 그녀의 청첩장을 받았는데, 순간 내가 하는 일이 이 청첩장과 닮았다는 것을 느꼈다. A기업과 B기업 간 인수 합병, 투자 유치, 공장 설립 발표. 이런 자료들이 말하자면 ‘기업의 청첩장’이다. 그리고 영원한 외부자이자 초대받지 못하는 기자는, 그 종이가 인쇄되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다. ‘이게 그때 내가 했던 일이구나’ 하며 피식했다.

물론 이후 취재들이 이때처럼 빠르게 기사화 되진 않았다. 링크드인을 비롯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렇게 딱 들

어맞는 경우는 드물기에 확인과 디테일이 요구됐다. 선배들은 자주 말했다. “좀 더 확인하자. 자칫하면 오보다.” 단독과 오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나는 산업부서에서 뼈저리게 배웠다. 물론 결국 기사화한 것도 있었지만, 아쉽게 무산된 것도 많았다. 쓰고 싶었지만 쓰지 못하는, 문턱 앞에서 멈추는 그 감정. 아니면 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 말 못하는 감정. 하지만 자칫 던져버리는 순간 아예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는 … 그건 기자만이 아는 갈망 아닐까.

하지만 이런 감각도 시간이 지나니 점점 무뎠다. 기사에 대한 갈망도 꽤감도



땅두릅은 '홀로 산다'고 해 독활(獨活)로도 불린다. 나무에서 자라지 않고 땅에서 캐야한다. 이렇게 땅에 박힌 부분은 하얗다. 하얀 부분이 많고 줄기가 굵을수록 경매서 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약발이 떨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남의 이야기'를 계속 쫓고 있다는 감각이 짙어졌다. 그리고 올해 3년 간의 산업부 생활 후 부서 이동으로 온 부동산부에서, 말 못할 번아웃이 왔다.

부모님은 내 기자 생활이 시작되던 무렵인 5년 전 투잡으로 충청도에서 땅두릅 농사를 시작하셨다. 딱 3~5월만 하는 시즌 작물이자 고부가가치 작물이기 때문이다. 환갑을 바라보는 부모님은 퇴근하고 밭으로 향했고, 주말이면 아예 매여 있었다. 4월인 1차 수확 때 부모님은 일주일간 휴가를 쓰고 작업에 매달렸다. 올해 2차 수확기는 황금연휴가 겹쳐 나도 오랜만

에 장기적으로 도울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번아웃을 틈타 농사일에 끼어들었다. 말이 좋아 전원이고 낭만이지, 거의 대학 병원 인턴의 삶이었다. 새벽에 나가서 작업하고, 경매를 부치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 작업에 들어가고, 저녁엔 야간작업까지. 시간은 곧 돈이고, 시간이 어물쩍 지나버리면 두릅의 상품가치는 쓰레기로 바뀐다.

땅두릅은 일반 산두릅과 다르다. 땅속 깊이 자란다. 초록빛의 연한 새순에 줄기는 뽕양다. 맛도 향도 일반 두릅에 비해 씹싸름하다. 또 여러해살이 풀이기에 해마다 돌아나고, 계절 따라 다시 자란다.



포장 과정이 끝나 상자에 조심하게 들어가 있는 땅두릅의 모습. 오후에 배송차로 가락시장으로 운송되고 밤 11시쯤 치열한 경매를 거쳐 가격이 매겨진다.

기자 생활도 이와 비슷하다. 매년 되풀이 되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무언가를 파내야 한다.

수확의 성패는 타이밍이다. 너무 이르면 쓰고, 너무 늦으면 질기다. 기후도 변수다. 심지어 우리 집은 비닐 하우스도 없어, 모든 걸 노지에서 견뎌야 한다. 작년엔 냉해로 1차 수확이 전멸했고, 하루아침에 400만 원이 날아갔다. 아빠는 항상 말한다. 흙을 깊게 파되 두릅의 근간이 되는 기저부를 칼로 딱 찢러 톱 파내라고, 중간에서 자르면 안 된다고. 끝을 정확히 끊어야, 다음 해에도 예쁘고 굵은 두릅이 나온다고.

이처럼 타이밍 못지 않게 파는 법도 중요하다. 깊게 박힌 두릅은 더 굵고, 더 상품성이 있다. 마치 팩트를 중간에서 자르지 말고, 끝까지 파고 들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중간치기를 캐는 순간 2차 수확 때 나올 땅두릅의 가치는 반토막이 난다.

땅두릅은 외부 기온이 낮을수록 땅에 깊이 박히고, 향도 강해진다. 굵은 두릅일수록 더 혹독한 계절을 견뎠다. 기자도 농부도 결국은 버티고, 기다리고, 파내 끌어 올려야 한다.

연휴 내내 나는 새벽부터 땅을 파다.



땅에서 갓 수확한 신선한 땅두릅의 모습. 신선한 것들은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오후엔 배송차 아저씨에게 박스를 넘기고, 밤이면 서울 가락시장 경매 단가표를 확인했다. 우리 가족들이 캐낸 두릅이 전국에서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평가가 수치로 매일 떴다. 그리고 그게 다음 날 새벽 시장에 풀렸다. 그 구조 역시 기사의 생태계와 맞닿아 있다.

오후 마감에 맞춰 박스를 포장해 넘기는 건, 마치 마감 직전 데스크를 향해 기사를 넘기는 일 같았다. 두릅 수확부터 포장까지 경매 납품 마감 흐름을 통제하는 아빠는 마치 데스크처럼 느껴졌고, 시세표를 확인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은 타

사 가판을 볼 때와 닮았다. 기획, 취재, 마감, 송출. 모든 게 몇 시간 차이로 움직이고, 다음 날이면 세상에 유통되고 배포된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손가락은 굵은 채였다. 땅을 파듯 키보드를 쳤고, 새로운 정보를 팼다. 반원처럼 구부러진 손가락들로 기사를 쓰는 모습이 땅두릅을 캐는 모습과 닮아 웃음이 났다.

올해는 좀 달랐다. 주말에 잠깐 도와드릴 때는 경제부 시절, 이 땅두릅은 마치 비트코인 같았다. 산업부 시절에는 배

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처럼 보였다. 올해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파다 보니 명상과 노동 그 어딘가에 있었다. 이른바 ‘몰입’이었다.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 더 큰 자극을 위한 여행도 좋지만, 이번 5월 황금연휴엔 땅두릅을 미친 듯이 캐면서 번아웃도 다소 해소됐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일에 감사하게 됐다. 중노동에 가까운 이 농사를 통해 느낀 역설이었다. 신선한 땅두릅의 쓴맛 덕분에 업무가 비교적 달게 느껴졌다.

땅두릅 농사를 마무리 짓는 지금. 나는 청첩장을 쫓으며 특종의 쾌감을 알았고, 봄날 땅두릅을 캐며 기자로서 오래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청첩장을 받았을 때, 나는 생각했다. 기자는 결국 정해지지 않는 걸 쫓고 또 찾아야 사람이라고. 인쇄되기 전의 공기, 그 애매한 진동을 먼저 감지해야 하는 사람. 내 업이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또 두릅을 땅에서 캐 때 나는 다시 느꼈다. 사람을 캐고, 사실을 캐고, 기사를 캔다. 올해도 나는 청첩장을 쫓고, 두릅을 캔다. 

한국경제TV 강미선 기자